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7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5호

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 3월 5일

보도에 의하면 2월 25일 미국무장관 포웰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조선과 대화와 협상을 계속 추진할것≫이라는 소리를 늘어 놓았다.

이것은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가 남조선행각기간 불어 댄 ≪대화≫타령의 모조품으로서 론의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 미국의 외교당국자들속에서 이런 소리들이 자주 튀여 나오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대화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밝히지 않을수 없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시기 조미사이에 이룩된 합의를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대화를 재개해 나가자는 립장이다. 그런데 부쉬행정부가 이미 이룩된 조미합의를 존중하기는 커녕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고 더우기 우리 제도자체까지 거부하는 망발을 줴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서는 부득불 부쉬행정부와 대화탁에 마주 앉을 명분도 신뢰감도 없어 졌다.

우리가 대화를 하자는것은 미국으로부터 우리 제도를 존중받기 위한것이지 우리의 무장을 해제 당하고 제도까지 내놓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침공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부쉬행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대화≫는 필요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이것은 결코 미국측이 지금 떠들고 있는 ≪벼랑끝전술≫도 아니며 대화를 위한 ≪전주곡≫도 아니다.

미국의 ≪대화≫론은 한마디로 말해 ≪채찍≫론의 위장물이며 우리에 대한 ≪트로이목마≫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부쉬가 이번에 남조선을 돌아 치며 ≪가장 위험한 정권≫이니 뭐니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보인것은 그들의 ≪대화≫타령의 기만성과 허위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특별히 엄중시 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부쉬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 인민의 운명인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변경≫까지 강박하려 든것이다.

물론 이것은 입김으로 바위를 흔들어 보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악랄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고 반드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악의 축≫론을 내들고 ≪선제타격≫의 전쟁폭언까지 줴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고 다른 편으로는 ≪대화≫타령을 떠들어 대는 진의도를 간파하기는 어렵지 않다.

부쉬는 자신의 전쟁행위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반미감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를 무마시키는 한편 ≪대화≫를 우리에 대한 압력공간으로 악용하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기회를 노리다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흉계밑에 ≪대화≫타령을 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의 ≪대화≫타령이 북침전쟁 폭음으로 번져 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우리는 미국과 한번은 결판을 보아야 하는것만큼 만단의 전투준비를 취해 나갈것이다.

미국의 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리회창의 망발을 규탄

조평통서기국 보도 제815호 - 주체91, 3월 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미국의 강경정책에 발 맞추어 련이어 우리를 걸고 드는 망발을 줴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보도 제815호를 발표하였다.

리회창은 지난 2월 21일 ≪한미가 상호리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느니,≪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는 지어 ≪북의 과도한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조선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망발까지 줴쳤다.

보도는 리회창이 미국상전의 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동족을 자극하고 대결을 선동해 나선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죄악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그가 그처럼 악질적으로 날치는것은 그 누구의 ≪위협≫보다도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의 자리를 타고 앉아 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미국호전광들의 특등앞잡이가 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엄중히 위협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리회창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전쟁이냐 평화냐,민족의 파멸이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느냐 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는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반역은 없다. 리회창과 같은 매국노,호전광의 망동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우리 겨레는 그 재난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민족반역자 리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해 버리고 민족내에서 완전히 매장해 버려야 할것이다.

리회창은 동족을 배반하고 외세와 작당하는것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논평

1 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
1 미국의 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리회창의 망발을 규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2)

세기와 더불어

4 3장 10절 철창속에서 (2)

칭송

6 21세기의 태양은 영원한 나의 생명
6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1)

7

한국민족민주전선

7 특등매국노의 궤변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5일
8 미국에 대항하는 유럽연합
8 추악한 반통일광

조선중앙통신

9 주체91, 3월 5일 보도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인민군대를 모든 분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 – 주체91, 3월 5일

아리랑뉴스

12

12 차세대 전투기 선정, 미국 강압 NO
12 미국의 패권주의와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12 부평미군부대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13 미 지식사회 ≪부시 일방주의≫ 비판
13 부쉬의 아시아행각을 규탄하는 대중강연회
13 미국의 부당한 긴급 수입 제한
13 ≪미군만행진상조사단≫ 방북
14 한나라당은 따뜻한 보수가 아닌 광란의 파시스트
14 조선・동아의 후안무치
14 발전소 미국 매각 반대 결의대회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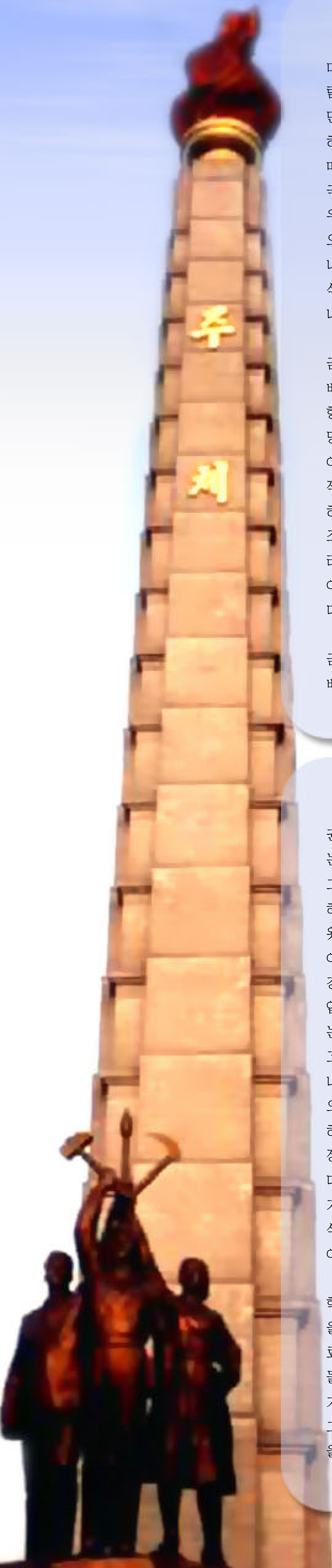
15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2)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공동체의 리익을 반영한 통일방안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2)

주체67(1978)년 11월 18일



선생이 여생을 조국통일사업에 헌신하며 미국에 돌아가서 재미교포들과 미국사람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조국통일정책과 민족자주적 입장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고 납득시키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옳은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지금도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있는 당사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정책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지금도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있는 당사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정책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언제나 민족자주적 입장을 지킬것이며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남이 예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의 이익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혁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언제나 그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덕신선생은 이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지만 최동오선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도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고려공산당이요 무슨 공산당이요 하면서 감자도장을 새겨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데 누가 승인하고 말고 할 것이 있는가고 비웃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위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으며 앞으로도 우리 식대로 나라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무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조선의 애국자들이 인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배양하느라고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도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던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적극적인 투쟁은 못되지만 투쟁형식은 좋았습니다. 해방후 우리 북반부에 큰 방직공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청년들에게 무명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날론천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천을 자체로 생산하여 좋은 옷을 해입고 있습니다. 비날론은 이승기박사가 해방전에 일본에 있을 때부터 연구한 것입니다. 그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쓴 비날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베를린도서관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해방후 남조선으로 갔는데 남조선집권자들은 그에게 과학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장군님의 품속에서 민족을 위해 복무하겠으니 받아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는 북반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나는 전쟁시기에도 압록강연안에 연구소를 지어놓고 그가 연구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후에 나는 이승기박사를 만나 연구결과를 알아보고 함흥에다 비날론공장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과학원 함흥분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은 2. 8비날론공장을 돌아보고는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승기박사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비날론을 만들어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는데 공업을 주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료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그 나라들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일없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목덜미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료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전에 일부 사람들은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는 것이 좋기는 좋다, 그러나 원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였다가 무슨 일이 생겨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유화학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원유가 나올 때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세계적으로 연료위기가 조성되어 원유값이 올라가고 미국, 일본, 서부독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경기로 아우성을 치게 되자 그들이 나에게 수령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주체공업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다 망할 뻔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에서 주체화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에게는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석탄과 석회석이 몇백년 캐먹을 수 있을만큼 무진장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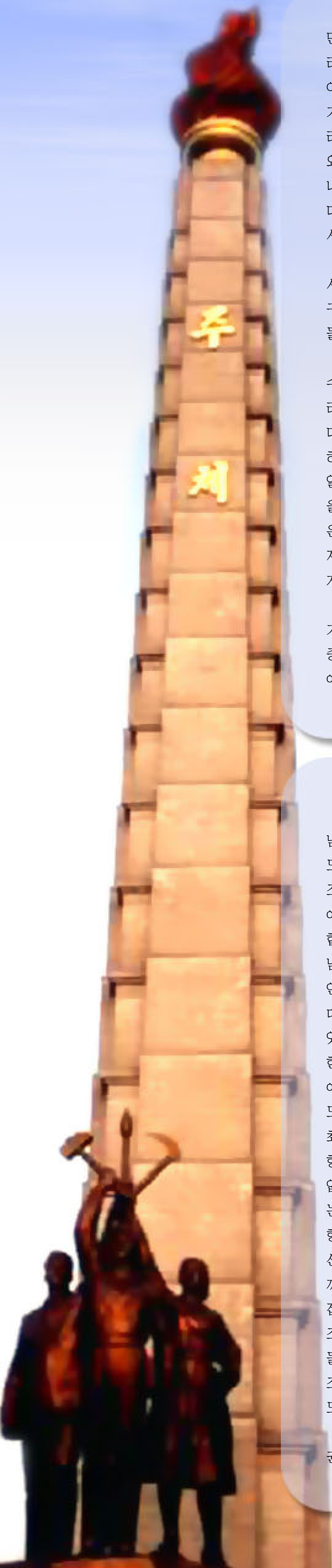
우리는 자기 민족의 것을 사랑합니다. 선생이 앞으로 자주 오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상점들에 가보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에 일본상품배척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상품을 송화강에 처넣군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 상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일부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있지만 인민들의 소비상품은 다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한 것입니다. 조선속담에 아이는 제 아이가 곱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상품이 질은 좀 낮아도 제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기 나라의 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왜 찬양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외국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것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그 무엇을 보나 러시아식, 중국식이 전혀 없고 다 우리 식입니다.

일부 나라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지

→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언제나 민족자주적 입장을 지킬 것이며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남이 예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만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에 대한 좋은 글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신문에는 우리에 대한 글이 나가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줄 돈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을 돈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한 글을 내는 것은 다 사상적 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일본화, 서양화되어 사람들이 조선말과 일본말, 서양말을 마구 섞어쓰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를 하다보니 조선사람들이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총련의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우리 동포들이 비록 몸은 일본에 있어도 동화되어 일본사람이 되지 말고 조선의 넋을 가진 조선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받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그 어디에 내놓아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이 되어도 절대로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앞으로도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중립적이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 것입니다.

미국지배층의 견해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미국사람들이 우리 인민과 철천지 원쑤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미국인민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이라는 인상을 가지지 않고 조미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인 것만큼 미국이 지난날 우리와 전쟁을 했다고 하여 영원히 우리의 적대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일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을 예속국으로 틀어쥐고 있으려 하지 않으며 조선이 통일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미국과 틀릴 조건이 없으며 미국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분단국가로 유지해나가려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카터가 미국대통령으로 올라앉은 다음 1년반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카터가 선거공약에서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고 또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우리 나라에 대한 내왕도 허락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 군사장비를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원조≫도 계속 주었습니다. 카터는 ≪서거공약≫에서 인권탄압을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박정희군사파쇼독재정권을 계속 비호하였습니다. 카터가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서는 떠들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비-52≫전략폭격기가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는데 대해서도 한동안 가만있다가 올해에 미국과 남조선이 ≪한미연합작전훈련≫을 한 다음에야 ≪철군≫을 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작전훈련≫이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이래 처음 있은 대군사연습이라고 때렸습니다. 미국에서 카터가 대통령으로 올라앉은후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비-52≫전략폭격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구실밑에 한달에 1~2번씩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도 군인출신인 것만큼 잘 알고 있겠지만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 비행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오끼나와에 있는 폭격기가 폭격연습할 곳은 오끼나와비행장 근방에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남조선의 아산만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전번에 내가 일본잡지 ≪세까이≫편집국장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남조선사람들에게 현 ≪정권≫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자는 것이며 또 우리도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사람들이 박정희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협하지만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파쇼독재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있으면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과거 봉건사회가 이 법칙에 의하여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이 법칙에 의하여 망해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이 법칙에 따라 혁명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쇼가 심하던 에스파냐에서도 인민들이 투쟁한 결과 파쇼독재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에게 무기를 많이 대주어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무기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기를 대준다고 하여도 인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쓰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남조선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조선경제가 ≪고도성장≫을 한다고 하여도 자본가들 몇몇 사람이나 잘 살 수 있지 노동자, 농민들은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본데 의하면 서울에는 이틀에 밥을 한끼씩 먹는 사람, 하루에 밥을 한끼씩 먹는 사람이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남조선군사독재자들을 비호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조선사람들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며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되게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지난 시기에 있은 조선농민폭동과 3. 1운동, 광주학생사건, 4. 19인민봉기에 대해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부심이 높습니다. 조선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미국이 계속 그렇게 우둔한 정책을 쓰다가 남조선에서 되게 얻어맞기보다는 지금 점잖게 남조선에서 손을 떼고 조선사람들끼리 통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조선에서 인권탄압을 못하게 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적 정부를 세우고 조선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여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게 하면 미국에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미국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고 미국과 우호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계속)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10. 철창속에서 (2)

그러나 모든 간수들이 다 리간수와 같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준 것은 아니였다. 간수들 중에는 문구멍으로 감방안을 엿보면서 수인들을 못살게 구는 뱀같은 간수장이 한명 있었다.

길림감옥에 있는 감수장이 모두 세명이였는데 그 간수장에 대한 평이 제일 나빴다. 그가 당번을 서는 시간에는 수인들이 감방에서 하품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어느날 그 간수장의 버릇을 떼여주기로 결심한 우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그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그때 길림제5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붙잡혀들어온 황수전이라는 중국학생이 이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독서회사건으로 감옥에 끌려온 학생들 중 조선학생은 모두 2명뿐이였고 나머지는 중국학생들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간수장을 혼내워주면 독감방에 갇히워 적어도 다섯달은 더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일없겠는가고 물었다. 황수전은 동무들을 위해 희생할셈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놈을 혼내주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묘한 방법으로 간수장의 버릇을 뚝 떼주겠는데 너희들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였다. 그는 참대저가락끝을 뾰족하게 깎아두었다가 간수장이 감시구로 감방안을 들여다볼 때 눈을 찔렀다. 간수장의 눈에서는 피와 함께 먹물이 흘러나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감방안에 갇힌 학생들은 그때 황수전을 보고 모두 영웅이라고 추어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황수전자신은 추운 겨울날 불도 때지 않은 독감방에 갇히워 한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

학생들은 간수들에게 황수전을 독감방에서 내놓지 않으면 네놈들의 눈을 다 찔러놓겠다고 을러메면서 그를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감옥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후부터 우리는 감방에서 하고싶은 것을 다하였다.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니였다. 내가 어느 감방에 가겠다고 하면 간수들은 어서 가보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었다.

나는 감옥생활을 할 때 손정도목사한테서 많은 방조를 받았다.

손정도목사는 내가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한 전기간 나를 친혈육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같은 학교(숭실중학교) 출신이라는 관념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이 아버지와 손정도를 뜨거운 우정으로 결합시키였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생전에 손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손정도는 3.1운동직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해림시정부에서 한동안 의정원 의장직을 맡아보았다. 한때는 상해에서 김구, 조상섭, 리유필, 윤기섭 등과 함께 무력항쟁을 담당할 군사인재양성의 사명을 띤 로병회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로동부장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러나 로병회가 해체되고 림시정부내부에서 파벌투쟁이 심해지자 그에 환멸을 느끼고 길림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길림에 와서는 례배당을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널리 리용하고 있던 례배당이 바로 그 례배당이였다. 원래 손목사는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는 길림의 기독교신자들과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신자들속에는 손정도처럼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조선을 위한 기도를 드리였고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여도 망국의 불행을 덜어달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그들의 순결한 신앙심은 항상 애국심과 련결되어있었으며 평화롭고 화목하고 자유로운 락원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념원은 시종일관 나라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천도교와 불교계 신자들의 절대다수도 애국자들이였다.

손정도가 류길학우회 고문이였으므로 나는 그와 자주 상종하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것이 분하고 애석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을 위해 투신하라고 격려하군 하였다.

내가 길림에 와서 육문중학교에서 3년동안이나 공부할 수 있은 것은 손정도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였다.

손정도목사는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겨우 유

길림감옥

지되어가는 우리 집의 구차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나에게 학비를 여러번 보태주었다. 목사의 부인도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 명절때면 그 부인이 나를 청해다가 조선식으로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다. 그 집에 가서 먹던 토끼고기를 넣은 두부지지개와 쫀드기떡이 참말로 별맛이였다. 쫀드기라는 풀은 잎에 보드라운 털이 난것이었는데 냄새도 없고 독도 없었다. 손목사의 집에서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그 풀로 떡을 해먹었다고 하였다. 그날 내가 목사의 집에서 먹은 떡은 북산공원에 가서 뜯어온 쫀드기로 만든것이였다.

손정도에게는 아들 둘에 딸 셋이 있었다. 길림에서 우리의 운동에 관여한 것은 둘째 아들 손원태와 막내딸 손인실이였다. 손인실은 그때 황귀헌, 윤선호, 김병숙, 윤옥채 등과 함께 조선인길림소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내가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나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주었다.

하루는 간수가 새 수인 한 사람을 우리 감방에 던져넣고 갔다. 어찌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려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근이였다. 1929년 봄에 군벌당국에 갑자기 체포되어 생사를 알길 없던 그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가 체포된 것은 종파분자들의 허위밀고 때문이였다. 강명근은 주중청총사건때문에 종파분자들의 보복을 받은 것이다.

종파분자들은 려신청년회 대표들이 지창자에서 열린 주중청총모임에서 탈퇴하여 자기들의 무모한 행동을 폭로하는 성토문을 낸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모해하던 끝에 교하에서 한 청년이 병으로 죽게 되자 강명근네가 그 청년을 독살한 것처럼 군벌당국에 밀고하였다.

나는 애매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강명근에게 혁명을 하겠다고 큰뜻을 품고나선 청년이 그쯤한 일에 의기를 꺾이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으니 군벌당국과 끝까지 싸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고무해주었다.

투옥되였던 감방

→

강명근은 그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말해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견결하게 싸웠다.

그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전기간 깨끗하게 살다가 해방된 다음 조국에 돌아와 우리 당의 과업을 받고 우당과의 사업을 성실하게 하였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강명근이 살아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여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이 기별이 강명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그는 나와의 상봉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뇌출혈을 하였다.

그때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길림시절을 두고 뜨거운 회포를 나누었을 것이다.

나는 감방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남긴 경험과 교훈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경험도 더듬어보았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시위투쟁도 해보고 파업투쟁도 해보고 의병투쟁도 해보았으며 독립군운동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투쟁은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운동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렸는데 왜 투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기만 하였는가?

감옥복도

우리 나라 반일투쟁대렬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반일항쟁의 첫 봉화를 들고 8도강산을 주름잡던 의병의 대오는 상하일치를 이룩하지 못하고 분렬되어있었다. 왕조정치의 회복을 바라는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기성질서의 개혁을 부르짖는 평민출신의병들사이에는 심각한 리념상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의병의 전투력을 높일수 없게 하였다.

구제도의 복구를 절대리념으로 삼고 있던 일부 의병장들은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기 위해 전공을 다투는 싸움까지 하여 대오를 분렬시켰다.

평민출신의 의병장들은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련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병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독립군의 실태도 이와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독립군은 조직자체에서부터 분산성과 산만성을 드러냈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3부로 통합된 다음에도 파쟁은 계속되었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상층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갈라져 권력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 큰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였다. 독립운동의 지도적위치에 있던 인물들가운데는 중국을 등에 업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쏘련의 힘을 빌어 일본을 타승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미국이 조선독립을 ≪선사≫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사대주의를 하게 된 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은데 있었다. 민족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을 떠나 상층운동에 머물러있었기 때문에 튼튼한 지반을 가질수 없었으며 인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었다.

감옥에서 만났던 강명근

인민들과 리탈되어 상층의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앉아 말공부와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지 않은 본질적 약점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속에서도 나타났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결속하며 투쟁에 동원할 대신 인민들과 동떨어져 말공부나 하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운동내에 발생한 종파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종파분자들이란 민족주의계렬의 부르죠아지나 소부르죠아인테리들과 몰락한 봉건귀족, 량반출신 인테리들로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로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고 맑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은 시대적 추세에 편승하여 맑스주의간판을 들고 혁명의 조류속에 휩쓸려들어온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파벌을 형성하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을 벌였다.

종파분자들의 분파책동으로 하여 결국 조선공산당은 자기대렬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일제의 탄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니였다.

나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보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었다.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나는 감방에서 앞으로 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싸워야 하며 반일력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하여야 하겠는가, 혁명의 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은 어떻게 창건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무슨 사업부터 착수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사회계급적 제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며 로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반일의 기치하에 묶어세워 투쟁에 불러일으키고 파쟁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조선혁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관점이 명백해지고 로선과 방침도 뚜렷하게 머리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니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나는 출옥날자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우리는 ≪학생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온 동무들과 함께 출옥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짜고들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투쟁방법은 단식이였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장한 결심을 하고 투쟁에 들어섰다. 단식투쟁을 시작하기전까지만 해도 나는 잡범들까지 망라된 이번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단식이 시작되자 매 감방에서 음식이 그대로 되돌아나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그릇의 음식을 놓고 싸우던 잡범들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학생사건≫으로 들어온 우리 동무들이 소리없이 교양사업을 해온 보람이 컸다.

감옥밖에 있는 동무들도 우리의 출옥투쟁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옥중투쟁에 호응하여 길림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군벌당국은 굳게 단결된 우리의 투쟁앞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나는 1930년 5월초에 길림감옥을 나섰다. 궁륭식으로 된 감옥문을 나서는 나의 가슴은 신념과 열정으로 차고넘치었다. 나는 감옥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총화하였고 그 교훈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설계하였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는 평양감옥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모색을 하였고 나는 이렇게 길림감옥에서 우리가 걸어야할 조선혁명의 앞길을 구상하였다.

불행한 망국노의 아들들이어서 아버지도 나도 감옥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끝)

십자형감옥외경

송시

21세기의 태양은 영원한 나의 생명

아브바카르 야쿠브

태양의 빛
동방에만 뿌리던가 서방에만 비치던가
그 빛발은 행성의
모든 것이 차지하게 되는 권리

이 권리 찾으려 인류의 태양 찾으려
얼마나 오랜 세월 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사슬을 부수며 망망대해
천리 먼 숲을 헤치며 방황했던가

태양의 빛발아래선
만물이 소생하고 만민이 행복하겠네
식민지시대에는 그리운 나의 태양 없어
노예의 멍에를 벗을수 없었고
태양의 빛발이 오히려
저주로운 악마의 소굴에 관통하게 하여
내 몸서리 쳤어라

진정 나에게
인류의 광명 밝혀주는 태양의 빛발
한줌이라도 뿌려진 곳이
그 언제 있었던가

하지만 지금은 그리운 태양
자주의 새 세계를 비춰주는 21세기의 태양
동방조선의 백두산에서 거연히 솟아
인류의 심장속 깊이에까지 뜨겁게 비춰주네

아! 21세기 인류의 태양 **김정일**장군
인류가 갈망하여 환희에 젖는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여
그분께서 뿌리신 빛발 그것은 인간의 자주적 생명
나의 운명과 미래를 비춰주는 위인의 사랑
그 태양의 빛발은 누구에게도 줄수 없는 신성한 나의 것

사람들이여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조선을 살피라
그 빛발 찬란해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광 빛나고
사회주의승리의 함성 들리거니

그 태양을 따르는 길에 승리와 행복만이 있길
내 그토록 소중히 생명보다 귀중하게
한 가슴에 부여안고 소리높이 외치노라

21세기 태양 그것은 영원한 나의 생명
그 빛발 지켜 한평생 바치리
김정일장군님께 내 운명 끝까지 맡기리

흠모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1)

마다가스카르 안찌라베 **김일성**서점 책임자인 라나부쏘나 필립뿌

머 리 글

나는 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책들과 잡지기사들을 읽고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기념일에 즈음하여 나는 이 글에서 그이의 위대성과 영도력 그리고 그이에 대한 우리 서점 일군들과 마다가스카르인민의 존경과 흠모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

제1장 김정일동지의 위대성

ㄱ) **김정일**동지의 사상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있는 것은 조선의 영광이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계신다.

그이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계시는 위대한 정치활동가이시다.

조국의 광복을 위한 항일전의 불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곡절 많은 당시의 엄혹한 시련을 겪으시며 숭고한 품격을 키워 나가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시다. 일본의 릿교대학 교수인 이노우에 슈하찌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풍부화한 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고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학, 정치경제학, 역사와 당건설사업,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신 영재이시다.

김정일동지는 인간을 깊이 신뢰하고 계시는 세계의 보기드문 정치가이시다.

그이의 이러한 풍모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받들어 나가시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생활을 통하여 갖추어진 것이다.

ㄴ) 인민에 대한 사랑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결한 정신과 혁명적 열정, 특출한 예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오시었다.

조선인민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얼마나 흠모하고 존경하는가 하는 것은 그이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김정일동지의 풍모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겸허하고 소탈하신 것이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사업에 대한 열정, 세련된 영도예술을 지니신 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고 계시며 국제정세추이의 분석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영도는 혁명의 수령에게 바치는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 민족의 운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있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포착하시고 언제나 무엇이든 통이 크게 작전하시고 일단 결심하신 사업은 끝까지 실현해 나가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시고 대중의 충실한 복무자로 되고 계시며 나라의 북단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의 곳곳을 다 다니시며 정력적인 지도를 주고 계신다.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은 그이의 풍모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마음은 그이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전통이며 그이의 투지도 대대로 이어오는 정신이다.

특등매국노의 궤변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4일~6일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남북사이에 잘 진전되던 화해와 협력관계가 최근에 와서 중단상태에 놓이게 된건 전적으로 호전광부쉬의 대북강경책동때문이라면서 부쉬의 악의 축망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우리 민중은 통일의 암인 부쉬의 방한을 전쟁행각으로 낙인하고 결사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극악한 반통일매국역적인 이회창패당만은 상전인 부쉬와 한짝이 돼서 이북을 심히 자극하는책동을 감행하고 있어서 민중들의 규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김문일씨의 글 ≪특등매국노의 궤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요즘 항간에서 미물이 더 악질이다라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염두해두고 하는 말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최근 부쉬의 한국행각시 그가 한 친미사대매국적인 언동을 놓고 봐도 그것을 잘알수 있다.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핏대를 세우고 기염을 토하면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쉬는 이번 한국행각시에도 또다시 북을 걸고들며 대량살상무기문제니 그 해결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느니 뭐니하는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망발을 거리낌없이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양심이 비난과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은 부쉬의 호전적 망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라는 얼토당토 않는 궤변을 늘어놓아 우리 국민을 경악케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미국에 환심을 사서 대권욕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친미사대매국노의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고있는 것이 북의 대량살상무기때문인가. 아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북의 군사력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의 무력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파국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적 군사력이지 남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북을 걸고들면서 위협이니 긴장상태니 뭐니하고 주제넘은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식민지주구의 비열한 억지공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삼으며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장본인은 미국 침략세력이다. 미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핵무기보다 성능이 훨씬 우월한 신소재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땅에는 이미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부쉬행정부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의 불길이 터지게 될지 모를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부쉬가 이번에 한국을 행각한 목적도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최종현지확인을 위해서였고 전쟁시간표를 짜기 위해서였다. 부쉬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고조되어 경향각지에서 가열차게 벌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 이회창에게는 미제침략군의 위협적 존재가 보이지 않고 우리 민중의 거세찬 반미함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미군야수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인해 우리 민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온갖 재난이 이회창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인가.

이 모든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는 벙어리나 소경이 됐던 그가 부쉬호전광의 도발적인 폭언은 때를 만난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우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민족의 재난속에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식민지충견의 가장 추악한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비루먹은 강아지보다 못한 천하에 둘도 없이 너절한 인간쓰레기의 어리석은 작태이다. 이런 자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헌신짝처럼 집어던진다.

그가 미국행각시 미국호전광들을 찾아가 굽신거리며 미국의 대북강경책의 충실한 집행자가 될 것을 맹약하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쉬가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아 호전적인 망발을 거리낌없이 한 것도 이회창과 같은 미국의 충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개가 이 땅에 있는 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기대할수 없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룰수 없다.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미국의 오만과 전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우리 민중은 더 비참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할 것이다. 나아가 북침전쟁이 터지게 되고 우리 민족이 돌이킬수 없는 미국의 핵전쟁의 참화를 입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등친미사대매국역적인 이회창을 하루빨리 정계에서 제거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국민은 이회창척결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국민이 살고 민족자주통일의 유리한 국면이 열린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5일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 예비역장교 김태호씨

인천에 사는 예비역장교 김태호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군복무시절의 동무들로 무어진 전우회 회원들과 함께 부쉬의 이른바 악의 축발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꼭 지난 1990년대 초반을 방불케한다. 그때 만전쟁이 있은후 미국은 기고만장해서 이북을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발광했다.≫

그는 미국이 전쟁까지 포함한 강경대응을 떠들면서 갖은 폭동을 다했지만 결국 이북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최근 부쉬미행정부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하면서 대북강경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부질없는 짓이다. 이북에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 유명한 선군정치로 군대를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다지셨고 이북을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꽉 차넘치고 일심으로 뭉친 철벽의 요새로 만드셨다. 이런 이북을 핵무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력한 병기로도 깨뜨릴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천하제일의 명장이시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김정일영도자님께 선물 시리아 외무성 대표단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시리아 외무성 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선물을 시리아 외무성 대표단 단장인 쑬레이만 하다드부상이 4일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남북공동모임을 무산시키기 위해 책동한 이회창일당을 강력히 규탄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한 인사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무산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한 이회창일당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책임은 미국과 이회창일당에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새해맞이공동행사는 2월 19일부터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미국의 지령대로 이 행사가 부쉬의 방한과 때를 맞추어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수 있다면서 행사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느니 통일연대를 참가시키면 안된다느니 뭐니하며 갖은 음모를 꾸몄다. 이회창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집권한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도적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그래서 행사는 연기됐고 또 공안당국이 통일연대 인사들의 참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미국행각시에도 미국상전들을 만나 전략적 상호주의를 떠들며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대화도 더이상 추진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에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전개해 줄 것을 간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쉬의 악의 축발언이 생겨나왔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계속된다고 한다.

이회창은 또 한국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북미대화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면 자신이 집권한후 미국산 첨단무기들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미국 당국자들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들은 이회창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 대통령자리를 따보려는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최근 각계에서 부쉬를 악의 화신, 이회창을 악의 뿌리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회창은 국민의 요구대로 더이상 매국배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하지말고 물러나야 한다.≫

여성권의 걸림돌을 선정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여성권의 걸림돌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일 여성권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성단체장 성추행파문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제주도지사와 군산 화재참사 관할지역 책임자인 군산경찰서장과 군산시장, 성매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황모판사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강경책을 펴온 부쉬미대통령이 군사주의 피해자인 한국여성들을 더욱 위협했다는 이유로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노래 ≪기특한 과자≫ 인기

최근 대학가와 노동단체에서 지난 1월 13일 백악관에서 TV를 보면서 과자 ≪프레첼≫를 먹다가 목에 걸려 졸도한 미국대통령 부쉬를 풍자한 노래 ≪기특한 과자≫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전대협진군가≫와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 민중가요를 작곡한 윤민석씨가 만든 ≪기특한 과자≫라는 제목의 노래가사는 ≪과자야 과자야 기특한 과자야/ 부쉬를 쓰러뜨린 힘 센 과자야/ 세상사람들 억울한 마음 달래주려고/ 네 몸을 던져 장렬히 산화했구나/ 부쉬야 부쉬야 쌈쟁이 부쉬야/ 과자의 테러는 배후가 어디냐/ 과자를 만든 나라는 이제 끝장났구나≫라고 **습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유럽연합

성훈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지난해 12월 벨기에에서 유럽연합(EU)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서는 EU의 개혁문제,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사태에 대처한 유럽신속반응무력 파견문제, 유로도입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EU는 아프간과 중동문제에서의 유럽의 역할에 관한 검토를 하고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3,000~4,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유엔다국적군의 명목으로 카불과 그 주변일대에 배치하기로 합의를 봤다.

여기에는 15개 성원국 모두가 참가하게 되었다. EU 대외 및 안보 정책담당 대표 솔라니는 아프간에 배치될 평화유지군의 기본골간은 EU의 병력이며 이외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벨기에외무상도 이에 대해 EU가 처음으로 국제문제해결을 위한 데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룩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자체의 독자적인 신속반응무력창설을 위한 데서도 협력과 연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성원국들은 2003년까지 6만명 규모의 신속반응무력을 창설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유럽연합무력이 미국과 NATO의 통제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서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EU는 미국이 국제공동체의 승인도 없이 아프간전쟁을 다른 나라들에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반대해 나서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성원국들은 미국이 ≪반테러전쟁≫을 구실삼아 다른 나라들에 침공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EU성원국들은 일련의 국제문제해결에서도 공통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동문제에 관한 EU의 태도가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는 장본인인 이스라엘은 지난해 말 팔레스타인 민족당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팔레스타인자치지역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이 지역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EU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아라파트대통령과 민족당국은 이번 충돌을 해결하는 데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화상대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평화회담을 재개하려는 아라파트의 의향을 지지환영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영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며 국가테러를 끝장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테러를 은근히 지지, 부추기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해에 들어와서 유럽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변이 일어났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단일화폐인 유로가 12개 성원국들에서 공식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로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교환되는 첫날부터 높은 시세를 기록하였다. 유로가 교환되기 시작한 다음날인 1월2일 하루만 봐도 아침에는 1유로에 0.8903달러였다면 저녁때에는 0.935달러로 교환되었다. 엔에 비한 유로의 시세도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영국 파운드에 비한 시세는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

그후에도 많은 나라들이 외화보유량중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던 달러를 줄이고 유로를 사들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제통화체제에서 유로의 지위가 강화되는 반면에 달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어느때 가서는 달러가 밀려나게 될 것이며 현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는 유로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게 될 수 있다.

유로의 성공적 도입이 세계경제와 정치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유로의 도입을 위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현 세계자본주의 금융체제는 달러가 주인노릇을 하는 달러지배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유로의 도입은 지금의 세계자본주의 금융체제를 크게 흔들어놓게 될 것이다.

≪9.11 습격사건≫의 여파로 하여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미국경제는 공황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유로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달러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유로가 다국적 화폐로서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달러가 받게 될 타격은 자못 충격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유로의 출현과 함께 세계자본주의금융체제안에서 지배권쟁탈전이 맹렬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엔의 국제화로 대응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아가서 세계에서 새로운 시장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전체를 상대하여 무역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유로가 국제화폐로서 성과적으로 유통되면 세계 정치무대에서 유럽의 지위와 발언권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유로의 도입은 필연코 유럽을 하나의 화폐를 가진 거대한 단일경제시장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나라들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무대에서까지 통일적인 정책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점차 잃게 되며 나아가서 유럽은 국제무대에서 독자성을 강하게 내세울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세계는 1극화가 아니라 다극화에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다.

유럽사람들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유럽이 미국과 같은 하나의 극으로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추악한 반통일광

차명식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얼마전 이회창은 또다시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을 극구찬양하며 그 무슨 ≪북에 공짜는 없다≫는 얼빠진 망발을 줴쳐댔다.

야당총재에 불과한 그가 이북에 무엇을 주었고 줄 것이 있기에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쓸개빠진 망발로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려 한단말인가.

이미 이회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곡조를 되받아 외우며 통일대방이며 동족인 이북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상호주의≫니, ≪퍼주기≫니, ≪국민혈세탕진≫이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아 내외의 비난과 지탄을 받아오는 악한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 온 겨레가 이회창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망발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며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회창의 이번 망발은 특등친미매국노, 반통일역적의 정체를 또다시 적나라하게 표출시킨 작태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회창은 집안에서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다 못해 지난 1월 분수에 맞지 않게 미국을 돌아치면서 미상전앞에서 남북관계진전을 정면으로 반대하였는가 하면 이북을 걸고드는 악담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애걸하는 추태를 부렸다.

심지어 이회창은 부시행정부패거리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떠드는 그 무슨 ≪재래식무기축감≫이니,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이니, ≪핵개발대비≫니 뭐니 하는 것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외워대면서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친미매국노, 반통일광으로서의 정체를 선명히 드러내 놓았다.

원래 이회창으로 말하면 매국배족의 핏줄을 타고난 역적중의 역적, 인간추물이다.

그의 애비는 일제통치시기 ≪검찰서기≫로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는 데서 악명을 떨친 친일역적이었다.

친일의 피를 이은 이회창은 ≪법관≫으로 있던 30여년세월 나라와 민족 앞에 만고대죄를 저질렀다.

역사에 기록된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을 조작하고 사장 조용수씨를 사형에 처했으며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을 극형과 중형에 처한 국민적 표적이 바로 이회창 반통일살인마이다.

그리고 남로당사건스파이로 맹활약하며 통일의 길에 나선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수없이 처형학살케 하였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회창은 이처럼 반북대결과 분열, 파쇼와 전쟁도발책동을 일삼는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의 시녀로 민족과 민중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덧쌓아 왔다.

이회창이 오늘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환영을 받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으며 반북대결을 고취하는 망발을 계속 늘어 놓고 있는 목적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남북대결과 영구분열에 명줄을 걸고 있는 반통일광 이회창이 어떻게 하나 미국상전에게 잘 보여 대통령권좌를 따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사회각계에서는 이회창을 두고 ≪권력을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종노릇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이라고 타매하고 있다.

오죽하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결성 한돌을 맞이하여 가진 정기총회결의문에서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우리는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를 추종하는 만고역적 반통일광 이회창을 정계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겠는가.

이회창을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 민중의 수치이며 대를 두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전국민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반역자이고 파쇼살인마이며 반통일호전광인 이회창을 타도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5일

≪21세기 태양맞이 모임≫ 진행
제주도 태양회 회원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태양회 회원들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21세기 태양맞이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은 조선민족과 인류공동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 모신 영광에 대해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한국≫변혁운동의 앞길을 밝히는 참다운 등불이 되겠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략을 금과옥조로 삼고 분렬의 장벽을 앞장서 허물어 나가는 통일운동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탄생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발표
≪한민전≫중앙위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를 1일 발표하였다.

공보에 의하면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절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가지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15일 ≪한민전≫ 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축보고회에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실 백두광명성으로 솟아 오르신것은 5천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통운이고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 놓은 일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그이께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하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발악적인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특출한 령도실력과 백승의 선군정치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시고 새 세기 이북의 강성대국건설과 민족적대번영의 앞길을 열어 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그이께서 계시여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새 세기는 영광스러운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각도, 시위원회들에서도 경축보고회들이 있었다. 경축보고회들에서는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축하문과 편지, 맹세문들이 채택되였다. ≪한민전≫ 각급 조직들과 애국운동단체들에서도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직진행하였다.

≪한민전≫ 평양대표부에서는 14일 평양에서 내외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남녘의 민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겨 올 남녘민중의 굳은 맹세를 천명하였다.

종자론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
로동신문

≪로동신문≫ 5일부는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무기인 종자론을 더욱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종자론은 창조와 변혁에서 종자가 기본이며 종자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결정한다는것을 밝힌 독창적인 사상리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창조와 변혁의 원리와 방법론을 밝혀 주는것으로 하여 종자론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에 벌써 종자론을 창시하시고 문학예술혁명, 출판보도혁명을 일으키시였으며 혁명과 건설 전반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안아 오시였다.

론설은 종자론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것을 새롭게 창조할수 있게 하며 비상한 열정을 가지고 더 빨리 나아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종자론은 언제나 새롭고 특색 있는 종자를 발견하며 그것을 틀어쥐고 잘 가꾸어 나갈데 대한 사상리론이다.

종자론을 구현할 때 잃을것은 모방과 교조뿐이며 얻을것은 창조와 혁신이다.

좋은 종자를 발견하면 비상한 창조적열정과 흥분에 넘쳐 사업을 전개해 나갈수 있으며 제기된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수행할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종자론은 비상한 열정으로 강성대국을 더 빨리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론설은 종자론은 모든 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실리를 보장하자면 타산이 앞서야 하며 그 타산은 사업에서 기본알맹이를 틀어 쥐는것이다.

분산성과 반복을 피하는 길도, 모든 일을 효률적으로 해나가는 방도도 종자론에 있다.

염주청년양어장 새로 개건확장

조선에서 염주청년양어장이 새로 개건확장되였다.

나라의 서북부 평안북도의 염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양어장은 2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그 면적은 근 100만이다.

크기가 서로 다른 80여개의 양어못이 양어학적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 졌다. 이곳에서는 4월부터 물고기생산에 들어 갈것을 계획하고 있다.

양어장에서는 바다물과 민물을 리용하여 잉어, 붕어, 숭어를 비롯한 온수성물고기양어와 함께 조개, 새우도 양식하게 된다.

이미 새우와 숭어를 자체로 인공부화시켜 정상적으로 새끼를 생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참게와 꽃게, 보가지를 비롯한 희귀어족의 생산도 예견하고 있다.

양어장에는 물고기들의 자연먹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백톤능력의 오리고기공장도 있다.

첨단기술성과

조선에서 제7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람회장에는 1,400여종에 2,200여점의 발명 및 새 기술성과자료들이 실물, 모형, 도해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전시되여 있다.

그중에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성과자료가 근 50종에 수백점이나 된다. 이것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실용적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 대표적인것은 자기마당에 의한 석탄탐사방법이다.

이 방법은 추공을 뚫지 않거나 줄이며 심부함탄층뿐아니라 얇은 깊이의 석탄과 석탄로두까지 찾아 낸다. 한점측정시간은 10초이며 3명이 하루 3만~6만평방메터의 면적을 탐사한다.

시추탐사에 비해 속도가 90배 높으면서도 석탄 1톤당 탐사비는 2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에 흔한 철분말합금으로 만든 초소성고강도경질합금도 실용적가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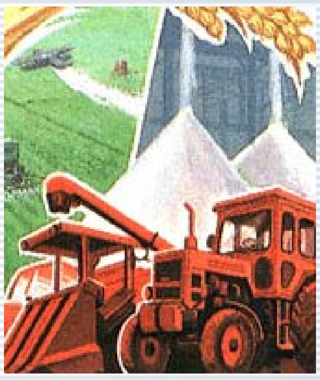
이 경질합금으로 만든 공구는 일반 공구에 비하여 그 수명이 4~6배나 된다. 반도체레이자치료기 ≪청룡-1≫, ≪청룡-2≫는 외과, 내과, 산부인과, 순환기과, 안과, 구강과 등 분야의 200여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그 효과가 90프로이상에 이른다.

축산에서 보기 드문 희한한 현상

함경북도 길주군 평륙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월 16일 새벽 2시 16분경에 가는털 엄지양이 무게가 5.6키로그람이나 되는 큰 새끼를 낳았으며 새벽 6시에는 4년생 조선염소가 4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이 농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두 차례나 찾아 오시여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르며 양을 우량종으로 개량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뜻깊은 고장이다.

이곳 농장원들과 주민들은 지난 시기에는 보통 3키로그람정도 되는 새끼를 낳던 가는털 엄지양이 5.6키로그람이나 되는 새끼를 낳고 조선염소가 4마리의 새끼를 낳은것은 정말 보기 드문 희한한 현상이라고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 하였다.

신문들 토지개혁법령 발포일을 맞으며 사설



5일부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날(1946. 3. 5)을 맞으며 사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 보려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토지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전국의 토지를 사회주의국가의 땅답게 일신시키는것, 이것이 오늘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토지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 주시고 고귀한 유산으로 남겨 주신 이 땅을 지키고 더 잘 가꾸어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토지정리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시고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토지를 명실공히 **김일성**조선의 땅답게 변모시켜 나가는 보람찬 사업이다.

사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 따라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빛나게 꽃 피우기 위한 토지정리사업에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일떠설 때 우리는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에로 더 빨리 나아갈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민주조선≫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당의 농촌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더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령시인민도서관

회령시인민도서관은 조선의 북부 함경북도 회령시의 중심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4층으로 된 이 도서관은 주체82(1993)년 12월 24일에 개관되였다. 연건평은 2,700평방메터이다. 30만부의 장서능력과 800여개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도서대출실,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청년학생열람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위한 질의응답실, 학생수학도서실, 록음록화강의실, 축소필림열람실, 영사실 등이 있다.

또한 어문별, 지식수준별에 따르는 열람실들도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도서관에서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산업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과 세계적발전추세를 보여 주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상적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미군만행진상조사단 도착

미국 ≪평화를 위한 로병조직≫대표 브라이언 윌슨을 단장으로 하는 미군만행진상조사단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임완식부위원장이 조사단을 맞이하였다.

각계에서 리회창의 사대매국행위 규탄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어 대는 리회창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남조선의 각 단체들은 리회창을 ≪자기의 더러운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고 침략자의 개노릇을 하며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 희생물로 내맡기는것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로 락인하였다. ≪한총련≫소속 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대학생들은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인 리회창이 6.15공동선언리행을 한사코 막아 나서고 있는 리유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실천련대≫는 리회창이 미국을 ≪옹호≫하는 망발을 서슴없이 늘어놓은것은 미국에 아부하려는데서 나온 반민족성, 반통일성의 명백한 증거이라고 지적하였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련대 준비위원회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통일만이 7천만 민족의 살길이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반통일행위를 걸음마다 파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결의와 경고는 다른 단체들에서도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민족자주 선언대회 진행

보도에 의하면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와 7대종단의 주최하에 400여명의 대학생들과 여러 단체들이 1일 서울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민족자주선언대회≫를 가지였다. 사회자인 ≪전국민중련대≫ 정책위원장은 3월 1일은 렬사들이 만세를 부르다 일제의 총칼에 쓰러졌지만 민족의 정신을 세계에 떨친 날이라고 말하였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은 3. 1정신은 종교, 리념, 계층의 차이를 넘어 서는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운동을 함께 해나간다면 곧 결실을 맺을수 있다고 확언하였다.

환경운동련합 단장은 앞으로 민간부문의 행사만은 반드시 이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총련≫림시의장 정종성과 광운대학교 학생 공혜정이 ≪3. 1항일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자≫라는 요지의 민족자주선언문을 랑독하였다.

참가자들은 ≪3. 1정신을 민족자주로 이어 가자≫고 다짐하였다.

미행정부 우익보수세력들의 얼 빠진 궤변

≪민주조선≫ 5일부는 미행정부의 우익보수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갖은 악담을 다 늘어 놓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부쉬는 최근에 있은 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행각시에도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대량살륙무기개발≫이요, ≪테로분자들에 대한 지원가능성≫이요 뭐요 하는 망발들을 줴쳐 댔으며 행정부당국자들도 여기에 합세해 나서고 있다.

론평의 필자는 이러한 망발은 얼 빠진 자들의 궤변외에 다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은 인류를 몇십번이나 멸살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핵무기를 생산배비해 놓고 있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다. 또한 세계최대의 군사장비생산 및 수출국이다. 지난해 미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무기수출액은 세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쉬패거리들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갖은 악담을 늘어 놓고 있는것은 조선을 대량살륙무기와 탄도미싸일 ≪수출국≫으로 몰아 붙여 이른바 ≪악의 축≫론을 정당화하고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데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그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 어떤 침략과 대결책동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6.15공동선언지지, 미군철수 요구하는 서명운동개시
체스꼬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개시 선포식이 2월 23일 쁘라하에서 진행되였다.

선포식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미로슬라브 슈쩨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전국각지의 공산당원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리 야르까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 250여명이 참가하였다.

총비서는 서명운동의 개시를 선포하면서 집회, 협의회진행, 결정채택, 성명, 담화 발표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운동을 힘 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서명문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조선을 둘로 갈라 놓고 있으며 미국의 부추김밑에 구축된 철근콩크리트장벽은 조선의 허리를 끊어 놓았다고 지적하였다. 서명문은 우리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군이 남조선에서 무조건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부쉬의 망발을 규탄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2월 27일 성명에서 부쉬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시비중상한데 대하여 폭로하고 이것은 조선인민이 접수할수 없는 제도를 강요하려는것으로서 조선의 내정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간섭으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또한 지난 기간 미국이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제재와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고 조선민족의 공동의 리익이며 과제인 조선통일의 길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부쉬의 악의에 찬 시도들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립장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쉬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대한 국제적반향

미국대통령 부쉬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와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조선통일지지 인디아위원회는 2월 25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부쉬가 아시아나라와 지역을 행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면서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드러내 놓은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쉬의 망발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부쉬는 자기의 망발에 대하여 응당 조선인민앞에 성근히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군과 대량살륙무기들을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에 대한 부쉬의 망발은 그 체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조선인민의 민족적감정에 대한 모독이며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로동당,방글라데슈로동자,농민사회주의당,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8개의 정당과 단체는 같은 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정신병에 걸린 미국대통령의 오만한 발언이 세계인민들을 롱락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조선의 편에 서있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규탄
로동신문

≪로동신문≫ 5일부는 최근 일본반동들이 미일군사동맹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요즘 일본정부는 일본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유사시법≫제로서 ≪무력공격사태대처관련법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외교당국자는 미싸일방위를 포함하여 ≪안전보장≫에 관한 일미대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방위청장관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안보기구≫를 창설하는데 주도적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

신문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편승하여 침략의 길로 더욱 로골적으로 내달리려는 저들의 진짜속심을 감추려는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력사적으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일본은 새 세기에도 그 상투적수법에 매달려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칼을 물고 뜀뛰기를 하고 있는것은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편승하여 해외침략의 길로 내달림으로써 지난 세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 있다. 오늘의 아시아인민들은 지난 세기의 아시아인민들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임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모든 분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1회

림종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5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모든 분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당 조직 정치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 모든 면에서 군대를 본보기로 꾸리고 내세우며 온 사회가 그것을 따라 배우도록 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 **≪사회의 일꾼들도 인민군대처럼 없는 조건에서도 할 일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혁명정신과 사업기풍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온 사회가 그것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조직영도하시였는가 하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대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발전소와 고속도로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장들과 농업전선, 전력생산을 비롯한 가장 어렵고 긴장한 경제부문들, 경제건설의 돌파구마다 영웅적인 군인건설자들을 파견하시여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조치에는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경제적 난국을 뚫고 나가는데서 앞장에 내세우고 그 모범으로 전민을 불러일으켜 강성대국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 가시려는 크나큰 뜻이 스며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기상이 나래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였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선, 인민군대의 당 정치사업과 사업기풍을 본받아 사회의 당 사업과 일꾼들의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2월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대학 학생들의 예술공연을 보아 주시였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인민군대 예술소조 공연과는 달리 기백과 양기가 부족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같은 청년들이지만 사회의 대학생청년들이 군인청년들보다 기백과 양기가 부족한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 사회의 당사업에 부족점이 있다는 것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꿰뚫어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따라배워 사회의 당 사업과 일꾼들의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실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1월 1일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하여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이 군대의 당 사업기풍을 따라배워 당 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사회의 일꾼들이 인민군대를 따라 배워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투쟁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탁상교양자료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교양수단으로 먼저 전군에 일반화하시고 그 모범을 사회가 따라 배우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던 하선식 선전, 하선식 선동의 모범도 사회에 널리 일반화하도록 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각급 당 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에서는 새로운 개선이 이룩되고 일꾼들이 어려운 일의 앞채를 밀고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기백있게 해제끼는 혁명적 기풍과 일본새가 확고히 서게 되였습니다.

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의 혁명적 기상이 나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의 손길은 예술, 체육사업에도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 부문에서 일관하게 군대예술을 내세우시고 군대예술의 창작, 창조 기풍을 따라 배우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의 예술공연은 한결같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는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이 차 넘치고 있으며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사상이 꽉 들어차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다 인민군대의 예술공연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시대정신과 사상은 사회전문예술단체들의 공연보다 군인들의 예술소조 공연들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 안의 예술단체들을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었을 뿐아니라 여러 기회에 인민군대처럼 사회의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창작과 창조활동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민군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군대에서처럼 가족예술공연도 조직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채롭게 조직하여 온 사회의 혁명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체육은 우리 나라 체육에서 기본을 이루며 그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체육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을 발전시킬데 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시고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사회주의 맛이 나는 군인들의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흘러들도록 현명하게 영도 하시였습니다. 주체86(1997)년 6월 10일, 어느 한 인민군 지휘부를 시찰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곳 군인들이 문화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사회에 일반화하실 구상을 펼쳐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고 있는 인민군대는 문화혁명수행에서도 모범이라도 높이 치하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고난의 행군에 빙자하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낯을 덜 돌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 **≪부대들을 알뜰히 꾸리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민군대의 이 자랑스러운 군풍을 온 사회가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후에도 여러 기회에 사회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군대처럼 자기 단위를 더 잘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사회에서 군대를 따라 배우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키기 위한 봉화로 되였습니다.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본보기로 앞장에 내세우시고 온 사회가 그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끝임없는 앙양을 이룩해 나가시였습니다.

그 봉화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끝임없이 이어가신 여러 도의 공장과 기업소, 도시와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 과정에 더 세차게 타올라 온 나라의 일터와 마을들의 면모를 급속히 일변시켰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서도 군대에서 그 본보기를 창조하고 사회에 일반화 해나가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6월 24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영원발전소를 시찰하시는 그 길로 어느 한 인민군대의 후방기지를 찾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높이 받들고 군인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길이가 600미터나 되는 큰 태양열온실과 대지목장, 어리목장, 음영조명을 요해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돌을 쳐내고 흙을 날라다 캐서 만든 강냉이밭과 남새밭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전군,전민의 전형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에는 창선이 전국의 본보기였다며 오늘은 이 부대가 본보기이다.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 나라 그 어디나 다 여기처럼 꾸릴 수 있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어버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운 이 부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 모범을 전군,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여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리게 한 사업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 나가시려는 그이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보살피심 속에서 그 해 9월 말부터 10월까지 당과 정부 간부들 도, 시,군의 책임일꾼들, 인민군대 안의 지휘관, 정치일꾼, 후방일꾼들을 포함한 연 4, 300여명이 참가한 전례없는 방식상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 그 후 사회에서도 남새온실 운영, 버섯재배를 비롯하여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86년 11월 16일, 인민군대가 건설한 성남몽기소목장을 돌아보시던 중 거기에 만들어 놓은 양어장을 보시고 이런 양어장을 몇개 단위에 더 잘 꾸려놓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온 나라를 물고기떼 굽실거리는 낙원으로 만드신 구상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신창과 북창 등 여러 곳에 양어장을 잘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후 신창과 북창을 비롯하여 인민군대에서 건설한 양어장들과 메기공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온 나라가 그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적인 양어장 건설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본보기로 앞장에 내세우시고 온 사회가 그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끝임없는 앙양을 이룩해 나가시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정치사상적 진지를 철벽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차세대 전투기 선정, 미국 강압 NO

열린사회 희망연대, 경남도의회에 ≪대정부 건의안≫ 채택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는 희망연대 공동대표단

지역 시민단체들도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에 있어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의한 기종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법광 육관응, 이하 희망연대)는 최근 경남도의회에 건의서를 내면서, ≪도의회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F-15 기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보잉사가 만든 오래된 기종으로 미국 내 전투기 선정에서도 제외된, 단종 직전의 기종일 뿐 아니라 더욱이 핵심 과제인 기술이전이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의 항공산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희망연대는 경남, 특히 사천은 우주항공산업단지 등 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어 경남도는 도민과 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도의회에 건의서를 냈던 것이다.

건의서에서는 도의회가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의한 기종 선택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만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선정이 미국의 정치적 강압에 의해 F-15기로 선정된다면 이는 국가의 주권과 국방의 자주성을 훼손 당하게 되는 일≫이며, ≪국가예산의 낭비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경남에서 항공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은 전국 항공산업의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경남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이번 4월에 발표할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 선정의 향배에 따라 지역 항공산업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 직전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점수가 낮은 F-15를 위해 기술이전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내년으로 발표한 기종 선택을 2002년 4월로 수정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희망연대 오창욱 사무처장은 ≪통일을 위해 군비감축을 통한 평화실현이라는 본질적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들여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성효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6

미국의 패권주의와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대학칼럼] 한 · 중 · 일 순방 이후 부시의 한반도 정책

부시 방한이 남긴 최대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자각이라 할 수 있다. 부시 방한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맹목적인 동경과 환상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사회의 대미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점환점이 됐다. 미국의 실체와 이중성에 대해 국민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부시 방한의 최대 성과는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불러오고 있다. 9 · 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미국은 패권주의 정책과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반테러리즘이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테러리즘을 구실로 군사적 행동을 일삼을 것이고 자신이 만든 세계표준과 룰을 전세계에 강요하며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는 집단에는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이라는 굴레를 씌울 것이다.

특히 MD(미사일방어)체제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제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러시아와의 ABM(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 폐기와 MD 구축으로 미국은 타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켜 절대적인 핵패권을 장악하고 핵선제공격능력을 독점하고자 한다.

부시의 한 · 중 · 일 3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부시는 지난해 제시한 신국방정책에서, 동북아 중시전략과 중국 견제정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에 편승한 일본은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지원과 자국 해안에서의 괴선박 출몰을 구실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군사대국화를 거들고 있다. 미국의 대일 정책은 주일미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이른바 ≪병마개역할≫ 해왔다는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일미군, 최종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며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한미정상회담은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를 휘감았던 전쟁위기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부시가 방한하여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북미관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간의 화해, 한반도 문제의 남북 주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 부시의 입장에서 이북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결코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깡패국가 이북≫, ≪테러지원국 이북≫,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이북≫이 MD와 같은 군사정책에 명분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작년 6월 부시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은 미국의 이같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제시한 대화 의제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 무장해제와 다름없는 의미로 이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다. 또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의제 속에는 사실상 많은 전제와 조건이 함축돼 있다. 이북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내밀고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부시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표면적인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미국의 의도에 적극 부응할 친미사대적이고 냉전수구적인 정권의 창출을 기대할 것이다. 만약 냉전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내년 이후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을 것이다. 부시의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동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도태무기 전시장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쥐고 있던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을 겨냥, 냉전세력에게 유리한 국면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는 ≪북풍≫이 아니라 ≪미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철기 교수(동국대교수 · 국제관계학)
대학신문 2002/03/05

부평미군부대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2002 시민 걷기대회

◎ **기본 취지 및 목적**

- 3월 15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상을 앞두고 부평미군기지를 돌려 받기 위한 사회적 여론 확산
- 북 · 미간 긴장고조, 미국의 보수적 패권주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공여지 반환논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등 많은 현안에 대한 대응

◎ **일시 및 장소**

2002.3.9(토) 늦은 2시
부평미군기지 옆 주차장

◎ **주관**: 부평미군기지 공원화추진협의회

미 지식사회 ≪부시 일방주의≫ 비판

미국내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조지 부시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드러내보인 일방주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려 들지 말아야 하며 그보다는 오히려 온 인류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헨리 키신저(75 · 사진) 전 미국 국무장관은 5일 미-중 상하이공동선언 발표 3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중국을 ≪잠재적 주적≫으로 설정하고 포위정책의 강화를 꾀하는 조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현재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는 세상에 오직 하나의 초강대국만이 영구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며 ≪미국은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능의 일부를 다른 어떤 나라가 얻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미국은 이 잠재적 파트너와 함께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이 3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중국이 평화적 발전에 대한 미국쪽 관심의 진지함을 이해할 것인지 △대만을 비롯한 다른 상대방들이 정면대결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인지 여부 등을 꼽았다. 1970년대초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던 그는 마오쩌둥 중국 정부와의 막후 협상을 통해 미-중 관계의 초석이 된 상하이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선언은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방문 중인 1972년 2월28일 발표됐다.

조지프 나이

≪동의 통해 규범 만들어야≫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 국방차관보를 지내고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학장으로 있는 조지프 나이(65)는 6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친다≫며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인 힘의 행사보다도 국제사회의 동의로 국제적인 규범의 확립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며 국제 협조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세 나라를 똑같이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북은 핵 개발계획을 동결했고 미사일 수출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의 힘에만 의존하면 결국 미국의 힘은 약해진다≫며 ≪전지구적 이익을 포괄하는 형태로 미국의 국익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방도 비판…미 길 잃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저서로 잘 알

폴 케네디

려진 폴 케네디(57) 예일대 교수도 최근 영국 잡지 ≪옵저버≫에 기고한 ≪미국은 길을 잃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 유럽 · 아랍 · 멕시코 등 세계를 둘러본 결과 최근의 미국 민주주의가 미국민의 생각처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영국에서조차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소리가 드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뢰, 국제전범재판소, 지구온난화방지 교토의정서, 유엔 분담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세계의 기대를 배반했다고 지적하고 ≪테러와의 전쟁≫처럼 필요하면 친구를 찾고 필요없을 땐 버리는 미국의 행위는 우방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2002/03/06

부쉬의 아시아행각을 규탄하는 대중강연회 일제히 시작

총련 도꾜도본부관하에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전개

지금 총련의 각 본부들과 지부들에서 미국 부쉬의 아시아행각을 규탄하는 대중강연회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총련 도꾜도본부에서는 2월 28일 본부관하 일군들과 비전임열성자들의 참가밑에 강연회를 총련 도꾜도본부회관에서 가지였다.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새 전쟁소동을 일삼는 부쉬의 망동을 견결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작년 11월 세계 면전에서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쉬가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남조선, 중국을 행각한 기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지어는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용서 못할 망동까지 부린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한후 부쉬의 ≪악의 축≫론은 한마디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악이며 따라서 오직 미국일국의 리익을 위하여 세계는 련합하여 이 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해야 한다는 강도의 론리라고 까밝혔다.

이 ≪악의 축≫ 등의 발언에 대하여 미국내는 물론 온 세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례를 들고 말한 그는 공식적인 비난과 규탄의 론조가 하나도 없는것은 오로지 일본당국과 언론매체들만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부쉬의 폭언들은 ≪엔론게이트사건≫으로 극도의 궁지에 몰리고 있는 부쉬가 올해 11월에 예정되여 있는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가져 가려는 속심에서, 또한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다그치는것으로 군수산업에 리익을 도모하려는 속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한 다음 부쉬망발의 본질이 이번 아시아행각에서 드러나 남조선에서 커다란 반대배격을 당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부쉬정권에 대한 우리 조국의 확고한 립장에 대하여 말하면서 모든 조직들이 부쉬의 망동을 단죄규탄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련 다이또지부 홍창광위원장은 ≪조은문제를 둘러 싼 일련의 총련조직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소동에는 미국의 힘의 정책이 깔려 있음을 알수 있었다. 특히 부쉬의 일본행각은 미일의 공조체제로 반공화국, 반총련의 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주곡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정세를 민감하게 주시하여 경각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에서는 앞으로 지부, 분회단위 강연회, 간담회 그리고 동포호별방문형태로 대중정치선전사업이 벌어 지게 된다.

조선신보 2002/03/06

미국의 부당한 긴급 수입 제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해 8~30%의 높은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부당하다. 이는 미국이 늘상 강조하는 자유무역주의가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적용되는 허구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런 보호주의 조처가 ≪세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미 유럽연합과 일본 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당장 발등에 큰 불이 떨어졌다. 국내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60% 안팎(6억~7억달러)이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세계 철강산업의 보조금 지급 관행과 과잉생산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미국이 외국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선 여기서 해결책을 모색한 뒤 수입제한조처를 취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도 일방주의로 내달리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비롯해 필요한 조처를 모두 강구해야 한다. 유럽연합 일본 등과 공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2002/03/06 인터넷한겨레

미군만행진상 조사단 방북

미국의 ≪미군만행진상조사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미국의 ≪평화를 위한 노병 조직≫ 대표 브라이언 윌슨을 단장으로 하는 미군만행진상조사단이 평양에 도착했으며 공항에서 임완식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부위원장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조사단의 구성원과 방북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의 램지 클라크 전 법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 조사단이 황남 신천군 등 6.25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 방이북 바 있다.

최선영 기자
2002/03/06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따뜻한 보수≫가 아니라 광란의 파시스트들이다

6 · 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 2002년 3월 6일

6.15남북공동선언이후에도 온갖 반북대결 반통일적 언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후원의 밤이 있었던 지난 2월 27일, 이른바 ≪보수출정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후원의 밤에 참여했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인사 800여명은 마치 승부겨루기를 하듯, 반통일적이고 반북대결적인 언사들을 남발하며 보수세력의 집결로 대선승리를 다짐했다고 한다.

김용갑 한나라당의원은 ≪좌파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회의 주도권을 우리 보수세력이 다시 되찾아야 한다≫, ≪안보의 축은 보수다≫라는 인사말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또한 ≪김용갑의원의 용기에 감복하며 한나라당은 따뜻한 보수이다≫, ≪이땅의 뿌리는 보수다. 보수가 서야 나라가 선다≫는 후원의 밤 모토에 공감을 표하며, 보수세력의 집결로 대선승리를 다짐하였다.

특히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박명환 한나라당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못생긴 주제에 대권을 인수하였으며 꾀가 쥐대가리다≫, 2001년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추진과 통일인사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평양축전에 국가보안법 수배자를 보내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한 300명 가 있다. 이번에도 정신병환자가 많이 가 있을 것이다≫라며 왜곡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도 ≪이북은 악의 축, 김대중은 악의 씨≫ ≪한반도 평화유지는 한미동맹 때문이다≫, ≪반미운동세력이 급부상했다. 이런 상태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보수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야한다≫고 발언하였다.

통일연대는 이러한 이들의 거의 광란에 가까운 소동을 보면서 이들을 보수로 쳐주는 것 조차도 심각하게 재고해야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보수주의≫란 현재의 상태나 질서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 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수주의에 대한 사전적 해석에 입각하여 볼 때 이들의 소동을 보수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규정이 아니겠는가! 통일연대는 보수를 반대하지만 보수주의도 하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과 더불어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의사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보수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하나같이 그 무슨 명분도 근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6.15공동선언의 시대적 흐름을 뒤바꾸어 놓으려는 미국에 앞장서서 충성을 맹세하는 광란적인 의식을 연상케 한다. 북을 ≪악의 축≫이라고 발언한 부시의 말에 대한 세계적인 공분이 채 가라 안기도 전에 이 말보다 더 극악한 말로 부시에 아부하려는 이들의 작태를 보면서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한 동족임이 부끄럽고 나아가 이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를 운운하는 현실이 망신스럽다. 이들의 이러한 광란극은 역설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폭의 패러디를 연상케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열리고 한반도의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의 대세를 읽을 능력이 없는 부시는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또다시 전쟁과 민족대결의 흐름으로 끌어드리려 하였으나 오히려 남한 내에 반미의식만 압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망신살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번 보수출정식을 빙자한 광란출정식이 자행되었다.

통일연대는 이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안일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그들은 분명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며 그 어떤 국민적인 공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의 집권을 위하여 그 어떤 미친 짓이라도 능히 할수 있는 극악무도한 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떨쳐나서서 6.15공동선언이행의 국민적 공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결의하여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만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극우 반통일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민족의 평화마저도 보존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뚜렷이 하여야 한다.

통일연대는 이 광란출정식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을 다시한번 공개함으로써 이들의 소행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조선 · 동아의 후안무치

과거를 반성않는 언론엔 미래가 없다

82
"내 사업은 민족의 훗날을 위한 일"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해 한국의 대표신문이라며 스스로 민족지임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역사왜곡과 후안무치가 점입가경이다.

먼저 3월 5일로 창간 82주년을 맞은 조선일보를 살펴보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의원)≫이 발표한 ≪친일파 708명≫ 명단에 ≪언론 내세워 일제에 아부한 교화정책의 하수인≫으로 포함된 방응모 전 사장을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는 사업가≫(5일자 14면)라며 민족지사로 추켜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가 82주년 특집으로 기획한 5일자 ≪계초 방응모와 민족지사들-≪내 사업은 민족의 훗날을 위한 일≫≫은 1884년 방응모의 출생부터 1920년대 후반 광산재벌로 성장한 이후 1932년 조만식의 권유에 의해 조선일보를 인수하는 과정, 광복후 백범 김구와의 인연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의 편향과 왜곡 실상이 이러한데도 6일자 ≪정도언론의 길≫이라는 기획기사는 시모어 토핑 미 퓰리처상 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제목을 ≪뉴스 왜곡, 편향 보도하면 독자들이 외면≫이라고 뽑고 있다. 이만저만한 후안무치가 아니다.

조선일보가 편향된 정보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친일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5일자 창간특집 ≪조선일보의 정도≫란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의 정도는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조선일보는 이런 정도의 정신으로 2020년 창간 100주년의 영예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섬뜩한 말이다. 과거 친일행적과 독재권력에의 굴종, 정치권력과의 타협 등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단절없이 지금까지 보여준 조선일보의 태도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응했더라면 수많은 독자가 지금 우리를 외면했을 것≫이라는 태도는 ≪친일이든 친미든, 친독재든 독자가 많으면 최고 아니냐≫는 오만이다. 사실 독자가 많으니 정론이라는 말은 대중지만이 난립하는 한국신문의 특수상황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창업주 김성수가 친일파 명단에 포함된 동아일보의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 또한 조선일보와 ≪오십보백보≫다. 오는 4월 1일 창간 82주년을 맞는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 친일파 명단 발표 이후 ≪친일파 명단에 추가된 16명은 정치적 이유로 추가된 것≫이라는 논지를 펴며 광복회가 선정한 692명외의 16명에 대해서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학계 자문위원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식으로 친일잔재 청산이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 강점기에 나름대로 항일논조를 보였으며 항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비하하려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 역사의 공과 과를 정확히 기록해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친일잔재에 대한 엄격한 청산작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자는 것일 뿐일진대 무슨 정치적 음모가 개입됐다는 것인지 두 신문의 음모론이 난데없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는 두 신문이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이용해 ≪과≫는 외면한 채 ≪공≫만 내세우며 독자들을 우롱하면서도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정론지≫이며 ≪민족지≫라고 내세우는 데 있다.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역사에 남기자는 것인데 공과를 가려 공이 있으니 과는 감싸주자는 주장은 두 신문이 지면을 통해 보여주는 태도와도 어긋난다.

이영태 기자
프레시안 2002/03/06

발전소미국매각 반대결의대회

민주노총은 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고 노동탄압을 지속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제2의 연대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임원과 산별 대표자들이 교대로 명동성당에서 발전노조 지도부와 함께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9일 전국 14개 도시에서 ≪발전소 미국 매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14일 서울에서 1천여개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견에서 ≪지난 8개월동안 노조의 대화요구를 무시해 파업을 유도한 경영진이 대화마저 포기한 것은 낙하산 사장의 표본≫이라며 ≪경영진은 즉각 대화를 재개하고 정부도 매각 중단과 재논의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파업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팔아 넘길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투쟁≫이라며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TV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2)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59호)

≪우리의 운동실천에는 우선 반미자주화 구호를 전략단계의 전 기간 한순간이라도 철수함이 없이 어느때 어떤 여건속에서나 전면에 배치하고 투쟁해야 한다. 당면한 전술적 목표가 반파쑈투쟁이라고 하여 반미자주화 구호를 내릴 수 없고 민중의 의식수준을 감안한다고 하여 반미자주화 구호를 뒷전으로 미룰 수 없다. 언제나 반미자주화 구호를 기본전략적 구호로 들고 나가야 반파쑈투쟁도 반미투쟁과 결합되어 편향없이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민중의 반미의식도 투쟁과정에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 . .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또한 미제의 강점과 식민지 통치로 빚어지는 모든 불행과 불이익 문제들을 사사건건 사건화, 쟁점화하면서 반미투쟁을 전면화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교활한 신식민주의 수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침략적 약탈적 본질이 깊이 은폐되고 있다. 이같은 여건에서 미제의 강점과 식민지 통치로 빚어지는 사건들을 일일이 문제시하고 가시화, 쟁점화하여 반미투쟁의 목표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 운동을 주되는 목표실현에로 침투시키는 데서 실천적 의의를 갖게 된다.≫(반미자주화를 전략적 중심고리로 확고히 쥐고나아가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준비기의 기본전략적 과제는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성장시킴으로써 변혁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준비하는 것이다.

변혁역량을 준비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제는 이미 마련된 변혁역량을 지배세력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는 것이다. 이미 마련된 변혁역량은 피나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속에서 하나하나 키워낸 귀중한 보배이며 보다 위력한 변혁역량을 축성하기 위한 소중한 밑천이다. 그런데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종종 이 귀중한 변혁역량을 보호보존하는 기본문제를 망각하고 승산없는 투쟁에 쓸데없이 몰두함으로써 적의 가혹한 탄압앞에 핵심을 노출시키고 조직을 파괴당하게 되어 역량을 소모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준비기의 우리의 투쟁은 근시안적인 역량소모전이 아니라 전략적인 역량보존전으로 나가야 한다.

변혁역량을 준비하는 데서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변혁역량을 중단없이 축적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미 축적된 역량을 보호보존만하고 축적성장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변혁운동을 확산발전시켜 나갈 수 없고 어느 때가도 결정적 시기를 마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호 그 자체도 자멸로 되게 된다. 변혁역량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끊임없는 실천투쟁에서 민중을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하여 투쟁대열을 끊임없이 확충해가면서 반동세력을 압도해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혁역량은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에로 결집하고 투쟁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축적성장된다. 그러므로 준비기의 우리의 투쟁은 어디까지나 변혁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변혁역량을 준비하는 데서 보호보존과 축적성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변혁역량을 성공적으로 보호보존하지 못하면 변혁역량을 축적성장시켜 나갈 수 없고 변혁역량을 준비하는 데서는 적의 탄압으로부터 이미 마련된 변혁역량을 굳건히 보호보존하는 동시에 투쟁속에서 그것을 부단히 축적강고화시켜 나가는 원칙을 결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준비기의 기본 방침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합법투쟁은 정치적으로 아직 각성되지 못한 대중까지 쉽게 투쟁에로 견인할 수 있고 적들의 탄압을 피하면서 투쟁을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시키며 광범위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해 나가면서 변혁역량을 대중적으로 장성시키는데 유리한 투쟁형태이다.

. . .

일반적으로 투쟁조건이 좋아지고 변혁운동이 상승발전하는 단계에로 들어서게 된 때에는 이미 적용했던 운동형태를 보다 더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형태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때에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하는 대중투쟁과 통일전선운동을 본격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대중적 변혁운동역량을 급속히 축적성장시키는 방향에로 나아가야 한다.

. . .

운동의 지도핵심들은 정세가 좋아진다고 해서 자기만족에 빠져 마음을 늦추거나 해이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적들의 탄압공세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 . .

변혁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투쟁이다. 정치가 사회생활의 주도적 분야를 이루는 여건에서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떠나서는 민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도 쟁취할 수 없다. 이같은 의미에서 정치투쟁이 없는 변혁투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정치투쟁을 거부하는 것은 변혁운동을 개량주의 운동으로 전락시키는 기회주의적 사조이며 이것은 곧 변혁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투쟁은 우리 변혁운동의 주체적 역량준비와 전략적 목적 달성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민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위력한 변혁역량으로 키우며 정권전취를 실현하는 기본투쟁형태이다. 그러므로 정치투쟁이 없이는 준비기의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없고 결정적 시기에로 변혁정세를 성숙시켜 나갈 수 없다.

경제투쟁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서는 민주의 근본이익과 변혁의 근본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투쟁은 비록 낮은 형태의 투쟁이기는 하지만 대중의 절박한 생활상 요구를 제기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민중을 투쟁에로 견인해내어 그들의 각성과정을 촉진시키고 투쟁을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대중투쟁에서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잘 배합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 양자의 결합은 민중의 근본이익과 당면이익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를 옳게 결합시켜 나가야 민중의 당면한 생활상의 처지를 개선해나가면서도 근본이익을 실현하는 데로 변혁운동을 착실하게 지향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만일 여기에서 정치투쟁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대중과 유리될 수 있고 반면 경제투쟁에만 매몰되면 조합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양자를 어떻게 결합해 나가야 하는 것은 변혁운동의 발전단계와 조성된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혁운동의 발전초기나 일시적 침체기에는 경제투쟁이 위주가 되고 여기에 정치투쟁이 배합되게 되며 운동이 자기 발전의 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되는 앙양기에는 정치투쟁이 위주가 되고 여기에 경제투쟁이 배합된다.

현 시기 우리 변혁운동 실천에서는 운동의 전반적 수준과 준비기의 전략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정치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경제투쟁을 배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계급계층 운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나 모든 행동전에서 반드시 시작부터 정치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시기에 전대협이 정치투쟁에 기본을 두면서 여기에 학내문제를 밀착시켜 많은 학생대중을 이끌어내고, 전노협이 임금인상투쟁으로 노동자대중을 궐기시켜 내고 투쟁구호를 점차 높여 나가면서 정치투쟁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농이 소몰이 투쟁, 고추싸움을 미국농축산물 수입반대투쟁, 양키축출투쟁으로 귀결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 .

우리는 운동실천에서 큰 규모의 투쟁을 터뜨리면서 동시에 작은 규모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작은 규모의 투쟁은 개별적인 업체, 대학기관 부문 지역들을 포괄하는 투쟁으로서 그 자체만으로써는 큰 위력을 낼 수 없다. 작은 규모의 투쟁은 대중을 투쟁에 쉽게 인입하여 어느 때든지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 과정을 단절함이 없이 부단히 촉진시키면서 큰 규모의 투쟁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큰 규모의 투쟁만 중시하고 작은 규모의 투쟁을 홀시하는 것도 하나의 편향이다. 작은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대하가 되듯이 운동에서도 작은 규모의 투쟁들이 모이고 집적되어 큰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투쟁이 없이는 큰 투쟁이 있을 수 없으며 작은 투쟁을 홀시하면서 큰 투쟁만을 바라는 것은 주관적 욕망이며 이것은 운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큰 규모의 투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누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또한 준비가 없이 덮어놓고 모든 투쟁을 큰 규모의 투쟁으로만 전개하려는 편향도 극복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가 없는 어떤 투쟁도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될 수 없다. 우리의 변혁운동가들은 80년대의 대투쟁 경험들을 적극 살려 내실있고 준비있는 대규모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이면서 여기에 작은 규모의 주쟁을 배합해 나감으로써 변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변혁역량을 급속히 성장시켜 가야한다.≫(변혁운동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잘 배합해 나가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우리의 변혁운동가들은 변혁의 준비기이건 결정적 시기이건 변혁운동의 제반 형태들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서 좌우경적 편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고도의 책임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변혁운동가들은 적아간의 역량관계와 내외의 정세를 신중히 고려함이 없이 개인영웅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변혁운동의 형태를 덮어놓고 극단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선택하려 해도 안되고 반대로 변혁운동의 정세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가는 시기에 변혁적 입장을 투철히 지키지 못하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우물쭈물하면서 정확한 판단과 명확한 결심이 없이 변혁운동의 형태를 구태의연하게 무난한 것으로만 적용하여도 안된다.

만일 적아간의 역량관계와 조성된 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소부르조아적 영웅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덮어놓고 높은 투쟁형태만을 절대화하면서 극단적이고 과격한 모험주의적 투쟁에로 추동한다면 변혁역량의 보존 축적에 엄중한 손실을 줄 뿐 아니라 변혁운동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늘날 우리 변혁운동에서 일부 변혁운동가들은 주객관적 정세와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과

➡

잉적인 욕구와 목표를 내세우고 극단적이며 과격한 투쟁에로 대중을 선도하는 경향성을 발로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변혁운동이 크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변혁투쟁이 한창 고조되는 시기에 투쟁열기를 무산시켜 버리게 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경우 좌경모험적인 투쟁방법과 직결되고 있다.≫(운동방법에서의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정세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민중의 역동성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는 정세관에 서야 한다. 경제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를 고찰하는 기성 정세관에서는 객관정세를 규제적,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부터 사회변혁운동 수행에서 그 주체인 민주의 역량이나 준비상태를 주요 변수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의 정세관은 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결정적인 변수로 보고 여기에 객관정세를 결합시켜 보며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그것을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평가에서는 우선 주객관정세를 밀접한 연관속에서 분석 평가해야 한다.

객관정세는 사회변혁운동이 발생 발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 여기에는 생산관계와 통치체제상태, 피압박 민중의 변혁요구 등 변혁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제요소들이 포괄된다. 객관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위기의 심화 정도, 통치체제의 붕괴, 와해상태, 사회적 모순의 첨예상태, 사회적 변혁에 대한 민중의 욕구분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투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주관정세는 변혁의 발생발전과 그 승리의 객관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여기에는 민중의 정치사상적 각성과 실천능력이 포함된다. 변혁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며 승리에로 이끄는 것은 변혁의 주체인 민중이다.

따라서 정세평가에서는 주관정세를 기본으로 보면서 여기에 객관정세를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

정세평가에서는 또한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아방의 역량평가에서는 전위조직의 견고성과 지도력,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정도, 주력군과 보조적 역량의 편성상태, 통일전선의 유무와 그 견고성, 공동행동의 실천력을 평가하며 적의 역량평가에서는 통치능력과 물리력, 경제력과 이데올로기 선전력, 지배층 내부의 모순과 대중으로부터 고립정도 등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면서 양자의 비교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세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정세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변혁의 성숙정도와 결정적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변혁의 결정적 시기는 민중 자신이 사회적 변혁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준비되었을 때, 세력이 우세를 점했을 때, 국제정세가 변혁의 편에 양호하게 작용할 때를 말하며 이것을 반영하여 중대한 사회적 사변이 터지게 되고 사회의 뒤떨어진 층까지도 변혁적 기분에 사로잡혀 투쟁에 나서게 되는 반면에 대중의 변혁적 지출 앞에서 반동 지배층이 겁을 먹고 동요하게 되며 적의 무력이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때이다. 우리의 변혁실천에서는 이같은 정세평가 기준과 결정적 시기의 판단징표에 기초하여 조성되는 정세를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투쟁형태를 선택 적용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운동실천에서는 정세를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파악함이 없이 일면적으로 고찰 파악하며 특히 주체적 역량 준비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투쟁형태를 설정하는 것보다 적의 책동을 기본으로 하여 운동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정세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피동에 빠지는 경향성이 없지 않다.

우리의 운동실천에서는 이같은 편향을 극복하고 항상 조성되는 정세를 예리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투시적으로, 정적으로가 아니라 발전적 견지에서 분석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는 투쟁형태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운동의 형태들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정세판단을 정확하게 해야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론)

≪투쟁구상과 설계를 주도면밀하게 잘 세우려면 우선 정확한 정세판단에 기초하여 적아의 동향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투쟁여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능란한 책략가, 세련된 지략가는 상황판단부터 잘하는 법이다. 참신하고 면밀한 투쟁전략을 세우려면 대중의 사상동향, 심리상태, 투쟁정서, 각오와 함께 적의 일반적 동태와 아방의 투쟁에 대한 적의 구체적인 흉계와 기도들을 정확히 뚫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운동가들은 투쟁요건 역시 잘 타산하고 능숙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주도면밀한 투쟁구상과 설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여건을 파악하는 데서는 주야간 근무일과 휴일, 개교와 방학, 계절과 특성 등 시기적 여건과 또한 도시와 농촌, 기업체와 학원, 가두와 구내, 중심구역과 위성구역, 실내와 노천 등 장소적 여건 그리고 지형지물의 위치와 같은 자연지리적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투쟁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운동가들이 주도면밀한 투쟁구상과 설계를 수립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정세판단과 정밀한 정황파악에 기초하여 투쟁준비로부터 개시, 진행, 결속에 이르는 투쟁전반을 이끌어 나갈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머리 속의 구상과 설계는 행동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변혁투쟁에서 성공하려면 변혁투쟁에 필요한 모든 여건과 변혁투쟁에서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아방의 정확한 대응전술이 사전에 면밀히 주어져야 한다. 이것을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면밀히 타산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가에 따라 투쟁의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된다.

행동계획에는 투쟁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와 투쟁구호, 대열편성과 배치, 물질적 수단의 구비와 투쟁방법, 지휘부의 구성과 행동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쟁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세와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제2, 제3의 행동계획도 수립되어있어야 한다.≫(운동의 형태들을 적용하고 선택하는 데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투쟁구상과 설계를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공동체의 이익을 반영한 통일방안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의미 -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련방통일국가가 북이나 남의 어느 한쪽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의 매 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문제들에서도 여실히 찾아보게 된다.

시정방침에는 련방국가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인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할 데 대한 문제가 명시되어있다. 또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할 데 대한 내용이 규제됨으로써 민족의 전반적 리익을 보장할 수 있는 넓은 길이 명시되어있다. 시정방침에는 또한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 등 온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는 문제들이 일관하게 제시되어있다.

시정방침에 명기된 이 모든 사항을 실현하면 민족공동의 리익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북과 남의 련계가 강화되고 민족적 유대가 긴밀해져 나라의 통일적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그 기구, 기능 등이 모두 통일국가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가 통일국가의 형성, 민족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존재하는 련방국가구조와는 다른 우리 식의 독특한 련방국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의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속에서 현단계에서의 평화통일 방도는 련방제밖에 달리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일련의 련방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대체로 통일국가로서의 련방이 아니라 통일에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련방에 귀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이와는 완전한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통일국가로서의 련방이라는데 근본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구상에는 많은 련방국가들이 있고 그것들이 일련의 특성들을 가지지만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체제내에서의 다민족련방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하나의 민족국가에서의 서로 다른 체제를 둔 련방이라는 차이점을 가진다. 다시말해 다른 나라들에서의 련방은 1체제, 다민족 련방이라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1민족, 2체제 련방인 것이다.

이처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 식의 독특한 통일국가건설안인 것이다.

(끝)